2030 여성 1인가구 간담회<1인가구 정:책방> 결과 보고서

잼있는인생,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

1. 간담회 개요

가. 행사 취지



2030 여성 1인가구 간담회 <1인가구 정:책방>은 청년 1인가구 여성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과제를 상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담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1인가구, 여성 청년 1인가구의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많은 시민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던 과거에는 청년 1인가구는 '결혼 전의 과도기적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청년 여성들의 결혼 의향이 감소 하면서 '더 이상 과도기가 아닌' 2030 여성 1인가구의 삶에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 정:책방> 그동안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2030 여성 1인가구의 삶과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간담회는 두 개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1인가구 여성으로서 겪는 불편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공감을 주고 받으며, 그 중 에서 정말 불편한 점들을 추려내는 <공감세션>이 있었습니다. 또 <공감세션>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의 변화를 상상해보는 <바람세션>이 있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간담회 자리를 넘어서 여성 청년 1인가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행사 개요



일시: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 9시

장소: 무중력지대 성북

참석인원: 00명

주최: 성북구 | 주관: 잼있는인생,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

2. 공감 세션

가. 개요

참가자들은 <공감세션>에서 각자 1인가구 여성으로 살면서 겪은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한 두개를 골라 포스트잇에 적어 판넬에 붙여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록으로 남긴 포스트잇들을 모아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정리해 <너무 불편 리스트 7>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나. 참가자들이 제기한 '불편한 점'들

1인가구 여성들이 삶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촬영의 피사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낯선 사람에게 폭력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등을 많은 1인 가구 여성이 늘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도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응답 내용(전체):

불안을 달고 살고 내가 조심해야 하는 현실이 불편

불안(창문으로 나의 프라이버시가 보호 안됨)

문소리, 걸음소리 밖의 소리에 예민, 불안

이웃의 문제에 항의하기 무서운 것

지방에서 올라와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외에는 친구가 많지 않다

조금 반지하라 벌레가 무서워요

아무일도 없어도 없는데로 불안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 여성가구만을 노리는 범죄자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해야지 "밤 늦게 다니지 마라" "배달 시키지 마라" 등등 얼마나 더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지

여자 혼자 집구하면 안된다! 라는 말에 남자친구나 가족과 함께 집을 구해야 함.(집주인의 무시)

혼자 사는 여자라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과한 잔소리 / 참견 / 오지랖 들을 때

사회적 시선이나 신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때

밤길 - 가로등이 어둡거나, 비상벨 설치,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

집에서 편하게 속옷 벗고 싶은데 입어야 함

(배달음식) 1 인분 배달 안됨

배달해주는 사람이 거의 다 남자

혼자서 요리 하지 않고 좋은 음식 먹기 힘듬. 비쌈.

혼자 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소비

월세에 부담이 넘 커요. 월세비용만 모아도 부자될 듯

창문 몰카 걱정. 몰카 찍힐까봐 걱정

창문 열고 살 수 없는 것

밤길 (안전) 왜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하는거죠?

밤길 혼자 걸어올 때 남자가 뒤에 오면 조심하거나 긴장하게 된다

밤길 밤길 혼자 걸어갈 때 뒷따라오는 남자만 있어도 무서워요.

택배 배달음식 등 낯선 남자가 집이나 집 근처 오거나 서성일 때 불안, 긴장, 경계하는 게 불편해요

불편한점 2 여자는 왜 내 집인데 편하게 옷도 못갈아입어 관음의 대상이 될까

늘 암막커튼을 쳐놓는 창문

택배 기사님은 언제나...

이웃이 너무 시끄러운데, 보복을 당하거나 또 바로 옆 집이라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밤 늦은 시간 문을 두드리는 이웃 아저씨! 이른 시간에 다시 오라고요!

불안 밖 현관에 소리만 나면 괜히 불안한 망므이 들고 현관 밖 누가 있을까 불안해요

벌레가 나오면 너무 무서워요.. 많이 극복했지만 벌레가 나오면 너무 힘듭니다 ㅠ.ㅠ

집과 건물에 대한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무시당하고, 폭언을 들었스빈다

불편한점 1 여자는 왜 쉽게 (집주인, 연장자, 남성 등에게) '을'이 되는 거야 !? 애 취급 ㄴㄴ

아플 때 / 혼자 밥 해먹고 청소 등 / 다 해야할 때 외롭고 힘들어요

외로움 혼자 있다는 사실이 계속 외로워서 집만 들어오면 TV 틀고 자면서까지 틀어둬요

실거주 평수 7 평 거주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좁은 방

비싼 월세로 생활이 힘들어요 ㅠㅠ

집값 너무 비싸다

핑크택스: 안전에 대한 추가 비용

부동산 분들이나 이사업체 분들의 은근 무시

택배(무거운 짐) 옮기기 힘든 점

<밤길> 낯선 사람이 뒤 따라나와도 혼자 살아서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요

경찰은 도와주지 않는다

<안전함> 보장되지 않는 사회

불법촬영

다. <너무 불편 리스트 7>

이상의 응답들 중에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 결정된 <너무 불편 리스트7>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1위) 왜 내가 조심해야 하나요?

공동 1위) 월세가 너무 비싸요!

2위) 안전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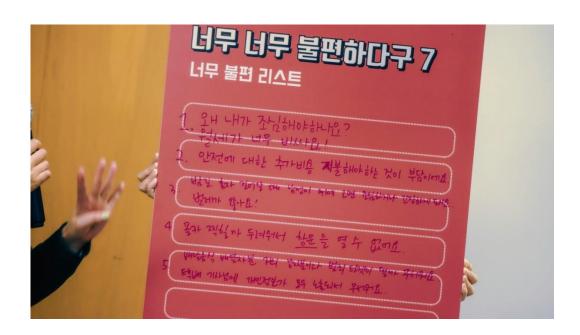
공동 3위) 밤 길 혼자 걸어갈 때 남성이 뒤에 오면 조심하거나 긴장하게 돼요

공동 3위) 벌레가 많아요!

4위) 몰카 찍힐까 두려워서 창문을 열 수 없어요

공동 5위) 배달음식 배달 분이 거의 남자분이라 범죄 타깃이 될까 무서워요

공동 5위) 택배 기사님에게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어 무서워요



3. 바람세션

가. 개요

참가자들은 <공감세션>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바람세션>에서는 정부와 사회에 바라는 점들을 논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한 두개를 골라 포스트잇에 적어 판넬에 붙여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록으로 남긴 포스트잇들을 모아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정리해 <하길 바람 리스트 7>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나. 참가자들이 이야기한 '바라는 점'들

'안전'과 관련된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창문 설치나 코팅지 부착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젠더 감수성 높은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젠더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이수한 부동산을 '인증'해주는 '여성 안심 부동산'제도를 운영하면 좋겠다. 여성 대상 범죄 발생시 대응,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입주민들 끼리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 등등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응답내용(전체):

1 인가구 건강한 공유식탁 / 집밥 / 건강한 레시피 / 재료나눔

한지붕 네가족 일반가구 + 1 인가구 + 대학생 + 독거노인

안전하길바람

1 인여성가구 성별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길 바람! (월세 너무비싸요) (대출 도와주지 말고 경기 안정시켜라)

1 인가구 동네방 + 지원센터 (무거운 짐 옮겨야 할 때, 조립할 때, 망치 드릴 등 필요할 때 등)

집구할 때 동행해주길 바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 훨~~씬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길 바람... 여성 대상 범죄에 국가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절을 위한 정책도입을 바람! / 여성대상 범죄 OUT

여성보호관리처럼 1인가구 여성을 차라리 알림으로 캡스처럼 전화나 버튼만 누르면 바로 출동할 수 있거나 보호되는 지역 같은 느낌 e.g. 어린이보호구역

건물보안 (ex. CCTV 경보 시스템)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건물주 부담으로! (월세 올리지 말고)

역세권 주거환경 조성바람

"여성안심택배" 그러나 무거운 건 어떻게?! 무거운 짐도 안심하고 받기를 바람

여성을 위한 창문 여성 1 인가구에게 집에 창문을 반사되는 것으로 붙여주거나 지원해줬음 좋겠습니다

1 인가구의 집세, 월세가 너무 높아서 정부, 시 도 차원에서 집값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고 1 인가구의 경제 보조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바람! 몰카 예방은 신고가 아니다~ 몰카찍지마세요 안전부서 너무 전시행정 가정폭력의 심각성 인지하는 법 필요

불법촬영 문제가 공공화장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찍을 수 있기 대문에 강력조치를 해주셨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 인가구 주거건물 최소한의 안전장비 필수설치 및 꾸준한 지자체의 관리 / 검사

1 인가구용 제품군의 다양화 / 소분화(식재료)

배달음식 보관장소 공유

이런 이야기를 남녀노소 공론화되었으면

밖에서 불투명한 창문으로 공사하길 바람

건물 내 소통 창구 어플이 생겼으면...

경찰 신고 후 결과 공유해주시길 바람

호신용품을 무상지급(호신용 스프레이)

미국처럼 지하철이 24시간 운행됐으면 좋겠어요

지하철 10 계명 처럼 교육 시켜줘씅면... (에티켓)

주민센터 - 먹을거리 - 공유냉장고 - 집주변 식당 할인으로 식당 구입 - 공유 부엌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음

청년주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있지만 경쟁률이 너무 쎕니다

여성 안심 귀가 아줌마 > 혼자 사는 여자 동네 사람들.

터무니 없이 좁고 비싼 월세.. 주거의 질을 높여쥐고 월세 부담 줄여주세요!

여자에게 조심하라가 아닌 남자에게 교육을 같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여성 안전귀가 스카우트 더 늘려주세요

여성안심 부동산! (젠더교육 받았다든지~)

청년 주거형태 조사 & 지원정책

월세 내느라 끼니를 거른다! 월세 보조금을 주길 바람!

여성 대상 범죄 '시도' '의심' 도 엄격하게 수사해주세요

청년 행복 하우징 확대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안심 주거 안내 서비스

지역별로 주거 환경에 맞는 월세 가격 마지노선을 만들어주기 바람

정부지원으로 1인가구 여성 보안시스템을 지원해주기 바람!

몰래카메라 판매 규제

외부인이 함부러 들어올 수 없도록 도어락 , 열쇠키 등 보안 문제 개선 바람

신축 주택은 출입카드를 일리베이터에 탈 때 찍고, 자신이 거주하는 동에만 갈 수 있도록 제한 바람

웹하드 몰카 영상 규제

1 인가구 여성 보안문제 솔루션, 대처 방안, 범죄 갈생시 대처 순서 서울시에서 설명문 만들어서 배포!

통합적 여성 정책 추진체계(우린 집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예요

다. <하길 바람 리스트 7>

이상의 응답들 중에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 결정된 <너무 불편 리스트7>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1위)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보장이 필요합니다

공동 1위) 여성 대상 범죄 (대응)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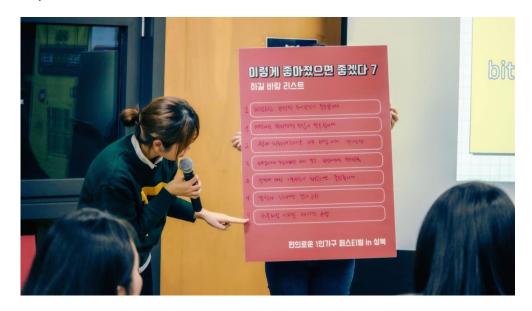
2위) 월세 지원해주세요!!! 너무 비쌉니다. 경기 안정이 필요해요.

3위)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하지 말고 남성에게도 젠더교육을

공동 4위) 안전에 대한 기본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4위) 경찰에 신고하면 결과 공유

5위) 뉴욕처럼 지하철 24시간 운영



4. 맺음말

<1인가구 정:책방>을 진행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안전'이었습니다. 강력 범죄 피해자의 88.9%"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이 생활에서 각종 범죄로부터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도움을 청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1인가구 여성의 경우 그 불안이 더 높은 것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1인가구 여성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과 대상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사업을 보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청년 세대의 주거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간담회에서 '안전' 다음으로 많이 나온 키워드는 '돈'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 지원 정책들의 규모를 키워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민과 노력에는 '커뮤니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 교수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이 지목하는 '위험 요소'들로부터 여성들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보다 언제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주변에 있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나를 알고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1인가구 여성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보고서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가치관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quot; 여성가족부, 통계청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